

《공자 지하철을 타다》《퇴계 달중이를 만나다》 깊이 읽기

“소피의 세계”를 뛰어넘는 철학적 참.신.함.



《공자 지하철을 타다》 김중욱·전호근 지음 | 디딤돌 | 252쪽 | 값 8,000원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 김은미·김영우 지음 | 디딤돌 | 212쪽 | 값 8,000원

글 안광복

철학교육은 요새 대안교육 움직임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다. 청소년들에게 철학은 깊이 있는 반성과 체계적인 성찰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철학교육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흔치 않다. 어려운 철학을 쉽게 풀어 쓰고 설명하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탓이다.

이 점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소피의 세계》는 대단한 책이다. 난해한 철학을 읽게 만들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소피의 세계》는 칭송받아 마땅하다. 이 책을 볼 때마다 나는 우리 필자들도 재미있게 읽히는 철학교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곤 했다. 그러던 차에 반갑게도 디딤돌에서 철학 소설 두 권이 나왔다. 《공자 지하철을 타다》, 그리고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가 그것이다.

먼저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부터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책은 《소피의 세계》보다 훨씬 수월하게 읽힌다. 먼저, 우리 필자의 글답게 문체부터 쉽고 자연스럽다. 게다가 ‘판타지 추리소설’ 같은 튼실한 이야기 구조는 내용 속으로 독자를 깊숙이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지녔다.

이야기는 이렇다. 안동 권씨인 달중이는 안동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다. 가문의 뿌리를 경험해 보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다. 하회마을로 가던 중에 달중이는 ‘병산서원’이라는 곳을 보게 되고,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에 가게 된다. 그곳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달중이. 그집 아들로부터 1,000원짜리 지폐의 도산서원 그림에서 마당쇠를 찾아보라는 장난스런 제안을 받는다. 달팽이 모양으로 된 병산서원 앞 화장실에서 달중이는 마당쇠를 찾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눈을 떠보니 달중이는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도산서원 안에 떨어져 있다. 왜 달중이는 그곳에 가게 됐을까? 어쨌든 서원의 마당쇠로 신분을 숨기며 살던 달중이, 우연한 기회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하지만 달중이는 놀랍게도 자기 주변에 500년 전에 사람이 건너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왜 이 사람은 시대를 거슬러 왔을까? 어떤 방식으로 건너올 수 있었을까? 의문을 좇다보면 손에서 점점 책을 놓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추리소설의 구도 속에서 퇴계 사상 또한 현실감 있게 다시 살아난다. 원래 한 시대의 철학은 그 당시의 가장 민감한 아픔을 고민하는 가운데 탄생하는 법이다. 그러나 원래의 문제의식을 잘 모르는 후세사람들은 추상적인 철학 결과물만을 공부할 뿐이다. 그래서 철학은 삶과 별 관계없는 공허하고 헛헛한 학문이 되어 버렸다.

작가는 퇴계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되살려낸다. 달중이가 입은 당시 한복에 대한 묘사, 식사 등의 설명 등에서는 당시의 생활사가 눈에 그리듯 잡힌다. 달중이가 병산서원에서 의식을 잃고 도산서원에서 깨어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는 서에 유성룡 선

이 글을 쓴 안광복은

서울중동고 철학교사로 학교도서관을 맡고 있다.
서강대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지은 책으로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진리를 위해 죽다》
《Who am I? - 나는 내가 만든다》 등이 있다.



생이 퇴계의 제자였다는 사실 또한 자연스레 설명된다. 그 사이 사이에는 영남학파의 맥도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달중이를 챙겨주던 배순이는 천민인 대장장이 출신이었다. 그가 공부하면서 구박받는 모습을 통해서는 공부는 당연히 사대 부만의 몫으로 여겼던 당시 시대 상황까지도 섬세히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이른 아침마다 체조하고 천체天體를 연구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한약을 짓기도 하는 이황의 모습을 통해서, 사대부에 대해 흔히 갖는 사대부에 대한 편견도 자연스럽게 깨진다. '효율적'으로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서당으로 옮기는 사대부들, 그래도 마음 수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퇴계의 가르침 등에서 점점 관학으로 굳어져가는 조선 주자학에 대해 퇴계의 성리학적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

또 한 가지, 청소년물답게 철학 이론에 너무 깊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점도 높게 사교 싶다. 청소년 철학도서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자들이 엄밀한 학적 의무감을 쉽게 접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실상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세탁기를 쓸 뿐 그

내부 작동원리는 잘 모른다. 그래도 일상에서는 별 상관이 없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그 철학이 내 삶과 시대 속에서 갖는 의미이지 세부적인 논변이 아니다. 이 책은 퇴계의 정교한 철학이론은 접은 채로,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퇴계의 '주일무적主一無適' 가르침에만 초점을 둔다. 이 책이 전문가 철학의 탈은 청소년을 위한 철학서임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이 모든 점에서 볼 때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는 《소피의 세계》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해 줄 만하다.

반면, 《공자 지하철을 타다》는 생각거리가 많은 책이다. 기획은 아주 훌륭했다. 공자의 사상을 현대의 의미로 느끼게 하기 위해 저자는 과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내용을 리라이팅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인물 자체를 현대인으로 '버전 업' 시킨 것이다. 공자는 발명가이자 사회 운동가로, 맹자는 '성전환'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는 여장부로, 장자는 농담을 일삼는 과격적인 괴짜로 등장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소년들이 필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패러디란 원작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만 재미있는 법이다. 공자와 맹자 자체가 낯선 청소년들이 이 성인聖人들의 화려한 변신을 제대로 따라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내용도 스토리보다는 추상적인 대화 쪽의 비중이 높다. 이야기에 주로 흥미를 갖는 청소년 독자 특성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다.

굳이 두 책을 비교해 평가하면, 《공자 지하철을 타다》는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보다 아이디어는 참신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내용이나 흥미도 모두에서 너무 의욕만 앞섰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는 앞으로의 철학소설에 있어 훌륭한 전범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공자 지하철을 타다》도 그 기획의도만큼은 두고두고 많은 화두를 남길 만한 작품이다.

입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참고서도 '참고도서' 들로 점차 대체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 출판시장이 암기와 문제 풀이를 위한 요약본에서 독서를 위한 도서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는 뜻이다. 참고서계의 '백전노장' 디딤돌이 기획한 청소년 도서로서 철학소설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반응과 발전을 기대해 볼 일이다. ■